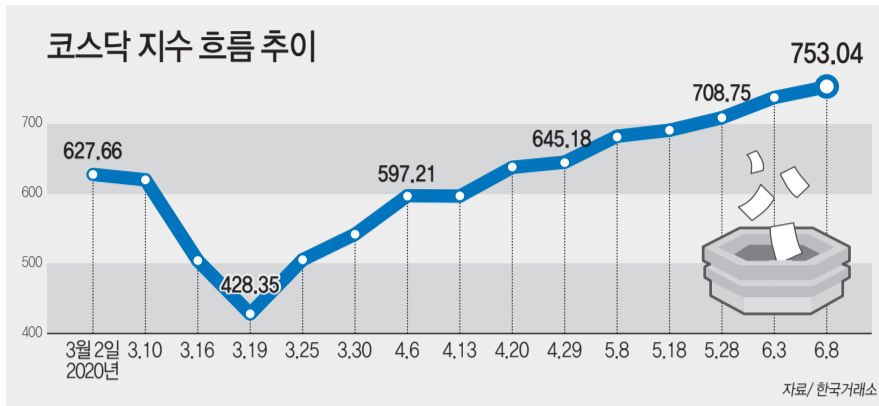


강통 걱정하던 코스닥, 이전 “과열”... ‘빚투’의 결말은?

종목 47% 신용융자 잔고율 3% ↑
‘빚투’ 늘면서 손실 위험성 우려
석달 남은 ‘공매도 금지’ 대비 필요
“코스피 대형주 위주 고려해볼 만”



최근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낸 코스닥 시장에 대해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수 급락까진 아니더라도 조정기를 예고하는 돌발변수가 남아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언택트(Untact·비대면)로 대표되는 기술주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속에 가파른 상승을 했지만 과열 개연성을 경계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코스피 대형주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다. 8일 코스닥 지수는 52주 신고가를 또한 번 경신했다. 전 거래일보다 0.50% 오른 753.04에 거래를 마쳤다. 이쯤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을 되돌린 셈이다. 연중 최고점을 매일 다시 쓰고 있다. 코로나19발 폭락의 정점이었던 지난 3월 19일(428.35)과 비교하면

무려 75.80% 뛰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수혜를 톡톡히 보며 세계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상승을 했다. 빠르게 상승한 만큼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신용융자 잔고율이 상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율이 3%를 넘어선 종목이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난 만큼 손실을 부를 위험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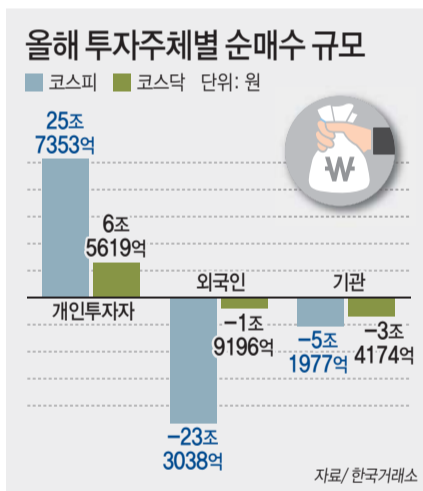
전 거래일 기준 6조1117억원에 달했다. 같은 날 코스피 시장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5조2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각각 1466조원, 276조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빚투’(빚 내서 투자)에 뛰어난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에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가 감지 못한 결제대금인 미수금이 늘어나 반대매매가 증가한다. 반대매매는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

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융자 잔고율이 3% 이상인 종목 비중이 35%를 넘어가면 1개월 이후 조정반을 확률이 높았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시장 변동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코스피 대형주의 비중을 높이라는 조언한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 대형주 수익률이 코스닥 성과를 앞서기 시작했다. 코스피 대형주는 지난주(1~5일) 7.97%의 수익을 거뒀다. 반면 역사적인 강세장으로 평가되는 코스닥 중소형주는 각각 4.74%, 3.59%였다. 코스닥 지수도 4.99% 상승해 대형주 상승분엔 미치지 못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 전통주와 철강, 조선 등 인프라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 것도 눈에 띈다. 최근 한 달 동안 KRX 기계장비 지수는 27.7%, 자동차와 철강 지수는 각각 23.0%, 18.2% 올랐다.

약 3개월 후면 끝날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대비해야 한다. 성장주들이 대거 분포한 코스닥 시장 특성상 공매도 금지로 중소형주 변동성이 줄어들며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기준 코스닥의 최근 실적 기준 주가 수익비율(PE)은 52배로 코스피(25배) 두 배 수준에 달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높아진 주가수익비율(PE)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 매수가 안전한 선택지”라며 “현 장세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비중을 낮추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염동찬 연구원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하드웨어, 금융, 시클리컬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 거래 비중이 높은 금융과 IT 하드웨어 등 대형주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외인 25조 주식 팔 때... 개인 32조 매집

외인 지난달 국내 주식 4조 팔아
외인 매도, 개미 매수 지속 전망



‘동학개미운동’이란 유행어가 생길 만큼 올해 들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화제다. 그동안 예·적금에 치중했던 보수적인 개미도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주식 투자에 나섰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얻은 ‘학습효과’ 때문이다. 적금을 깨는 등 모아뒀던 뭇돈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반드시 오를 것이 기대되는 비싼 주식을 위주로 사들였다. 위기 뒤에 반드시 반등이 온다는 판단에서다. ◆개미, 올 들어 32조 순매수 개미들은 올 들어 얼마만큼의 주식을 샀을까.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지난 5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만 25조7353억여원의 주식을

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주식도 6조 5619억여원을 매수했다. 양시장에서 모두 32조2971억여원의 주식을 순매수한 셈이다. 아직도 주식시장에 뛰어 들 대기자금도 풍부하다. 지난달 고객예탁금은 전 달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43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작년 말 27조3000억원에서 60%나 늘어난 것이다. 증시 전문가는 “저금리 지속과 과거

위기때의 학습효과 때문에 개미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전문가와 개미 간 증시 정보 불균형이 좁혀진 데다 연구하는 개미들이 늘었다”고 했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선 외국인이 팔고, 개미가 주식을 사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10년 여만에 1400대로 내려간 올해 3월 19일 이후 이달 5일까지 개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66.5%였다. ◆외국인, 주식 팔고 채권 사고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을 4조원 넘게 팔아 치웠다. 지난 2월 이후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올 들어 순매도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62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조 6210억원, 441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의 순매도 규모가

각각 1조8000억원, 1조2000억원으로 졌다. 반면 중동과 아시아는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조8000억원을 순매도 했고, 영국과 케이맨제도도 각각 7000억원, 6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우디(6000억원)와 중국(3000억원), 노르웨이(1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 달 말 기준 520조6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9%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올 들어 순투자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채권 6조294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3조4730억원의 영향으로 총 2조821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8000억원)와 미주(4000억원)에서 순투자한 반면 유럽(-9000억원)과 중동(-2000억원)에서는 순회수에 나섰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4000억원), 잔존 만기별로는 5년 이상(1조1000억원)과 1~5년 미만(9000억원), 1년 미만(8000억원)에 모두 자금이 유입됐다. 5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43조1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1면 ‘한화시스템’서 계속

우주 인터넷기술 확보 항공우주 경쟁력 강화

국내 최고 기술력의 다기능 레이다 전문기업인 한화시스템은 기존의 통신·레이다 기술과 연계성이 높은 인공위성통신 안테나 사업부문에 진출, 저궤도 위성 안테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항공우주 시스템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은 지구 상공을 떠도는 인공위성에서 5G·LTE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미국의 아마존·스페이스X 등도 미국이 필요 없는 위성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페이저출투선이 보유한 인공위성 안테나 기술은 이러한 ‘우주 인터넷’을 실현하는 핵심장비다. 항공기·선박·기차·차량 등에 안테나를 장착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해상·오지·상공 등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저궤도 인공위성과 송수신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항공기 안에서 동영상 이용 등 고품질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의 텔레메틱스(차량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술과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 시장규모 또한 지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6년에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기존의 첨단통신·센서·ICT 역량을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기반으로 더욱 확장해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합승 모빌리티 ‘셔클’ 가능성 확인

KST모빌리티와 넥달간 시범서비스 1만7439명 탑승하고 7만 여km 달려 후반부 호출 빈도 늘고 만족도 높아
현대자동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가 이용자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차는 KST모빌리티(이하 KSTM)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진행한 라이드 풀링(합승) 모빌리티 ‘셔클’ 시범 서비스를 지난달 마무리하고 운영 성과를

공개했다. 셔클은 반경 약 2km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호출을 통해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로 은평뉴타운(은평구 진관동)에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합승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KSTM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면서 국내 최초의 라이드 풀링 서비스인 셔클의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다. 최대 400명(신청자 선발 100명, 1인당 초대 3명)의 은평뉴타운 주민을 대상

으로 3개월간 진행된 서비스는 1만 5041건의 호출을 통해 1만7439명이 이용했고 총 6대의 차량은 6만9526km(일평균 755km)를 운행했다. 서비스 시작 직후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일상적인 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차량 소독, 손세정제 비치 등 차량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한 이용을 이끌어냈다. 하루 최대 호출은 389건, 탑승 인원은 436명을 기록했고 특히 서비스 후반부로 가면서 탑승자와 호출 빈도가 꾸준히 증가해 서비스 마지막 주에는 2836명이 셔클 차량에 탑승했다. 최다 이용자는 서비스 기간 동안 총 193회 호



출하기도 했다. 서비스 이용 회원이 응답한 주된 이용 목적이 장보기, 등하교, 병원/은행 순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내 일상형 모빌리티 서비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양성운 기자 ysw@